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5. 잊혀진 불교의 산하, 아프가니스탄

뉴욕 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인류의 고뇌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비극과 통탄의 땅이 되고 말았다. 그 누구도 이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지금, 불교시대의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한다.



1933년 영국인에 의해 비마란에서 발견된 사리.

연한 불교예술품을 찾아낸다. 그들은 거의 도굴꾼 수준이었지만 1933년 영국의 찰스 매슨은 카피시의 옛 불탑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비마란의 사리용기를 찾아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책상 위에 놓여진 카불 국립박물관의 옛 도록집(1975)을 바라보는 나는 또 한가지 불행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3월 파괴된 비마란 대불은 물론 간다라 불교예술을 소장하고 있던 카불 박물관의 불교문화재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거나 약탈되어 암시장으로 흘러 다니고 있다.

아프간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들 예를 들어 쿠차, 투르판, 고창과 같은 옛 불교왕국들이 언제 어떻게 이슬람의 물결에 사라져갔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동-서양 연결

실크로드 요충지

드는 이웃한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와 함께 간다라불교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신라 혜초 스님은 비마란 대불을 처음으로 지나갔으며, 중국의 현장 스님도 비마란 대불을 바라보며 구법의 의지를 다졌다.

바로 그 불교의 산하에 이슬람의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한 때는 투르크족 노예출신인 알프테긴이 카불을 점령하고 가즈니에 이슬람왕조를 세운 962년이다. 977년 알프테긴(Alp tegin)이 죽고 그의 사위, 사부테긴(Sabuktigin)이 즉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정복하면서 불교는 이슬람의 폭풍 앞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불교는 문화와 예술을 남기는 종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계곡에 산재한 불교 유적지들을 뒤지던 유럽인들은 찬

■ 경학회 회장

“편액 보면 모셔진 불상 알 수 있어요”

참불자의 길 전각과 불상

대웅전에는 왜 석가모니부처님이 본존불일까?

사람을 한 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어봤을 의문이다. 이렇게 사찰순례가 답사 여행의 주요 테마가 되면서 사찰의 전각과 그곳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전각에는 건물에 모셔진 불·보살에 따라 ○○전, ○○각과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래서 전각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밖에서 편액만 보면 그곳에 모셔진 불상이 어느분의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사찰에서나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왜냐하면 '대웅(大雄)'이란 석가모니부처님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대웅전-석가모니불 적광전-비로자나불

무량수전-아미타불 원통전-관세음보살

의)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으며, 좌상일 경우에는 선전인을 하고 있는 이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석굴암 본존상처럼 왼손을 펴서 가운데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떨어뜨리는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는 것이 통례였다.

모든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보신(寶身) 수행을 통해 얻어진 내적 체험에 의해 스스로 증득한 법을 스스로 수용하고 즐기는 불신인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질병의 고통을 없애주는 의사격으로 출현한 부처다.

법신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본존으로 모신 전각은 비로전, 화엄전, 대적광전 등으로 부른다. 법신은 빛깔이나 형상이 없는 우주의 본체인 진여실상(眞如實相)을 의미하는데 이 부처를 형상화시킬 때는 단상에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왼손은 무릎위에 놓고 오른손은 가볍게 들고 있는 모습을 취한다.

모든 부처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보신(寶身) 수행을 통해 얻어진 내적 체험에 의해 스스로 증득한 법을 스스로 수용하고 즐기는 불신인



회암사 각황전(국보 제67호)에는 3개의 여래불상과 4개의 보살상이 봉안돼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지적보살상, 다보여래불상, 문수보살상, 석가모니불상, 보현보살상, 아미타불상, 관세음보살상.

자수용보신불을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독립전각에 안치돼 있지 않다. 다만 대적광전에서 왼쪽 협시불로 봉안될 뿐이다. 우리나라 대적광전안의 노사나불은 대부분 부처님 모습보다 보관을 쓰고 보배구슬로 장식한 보살로 더 많이 형상화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미타불은 한량없는 광명을 지니고 증생의 번뇌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이 없는 부처님을 가리킨다. 어떤 증생이라도 착한일을 하고 아미

타불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서방극락의 아름다운 정토로 가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건물은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등으로 부르고,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신 곳은 약사전이라 지칭한다. 보살들의 경우에도 관세음보살이 본존일 때는 관음전, 광명전, 대비전, 원통전 등으로 부르고, 지장보살이 본존일 때는 지장전, 명부전으로 부른다.

김주일 기자



'서장' 통한 선 공부 ③

왕장원(往狀元)에 대한 답사(1)

법으로 보면 오직 이 '하나' 일 뿐

"그대의 안목을 보니, 열에 아홉은 이해하고 있으나 다만 마지막에 한 번 내려놓는 힘이 부족하더군요. 만약 한 번 내려놓는 힘을 얻고 나면 유학(儒學)이 곧 불학(佛學)이고 불학이 곧 유학이며, 승(僧)이 곧 속(俗)이고 속이 곧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고 성이 곧 범이며,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이며,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결이니, 우유와 제호를 섞어서 한 맛을 이루고 그릇과 비녀와 팔자를 녹여서 하나의 금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니,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法王)입니다. 법(法)에서 자재(自在)하니 얻고·잃고·올고·그들에서 어찌 거리낌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지금쯤은 몇년 몇월 며칠 몇시 몇분 몇초이고, 여기는 대한민국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이고, 나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분별심에서 하나하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안목에서 말하면, '지금'이 이것이요, '몇년 몇월 며칠'이 이것이요, '몇시 몇분 몇초'가 이것이요, '여기'가 이것이요, '대한민국'이 이것이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이 이것이요, '몇 번지'가 이것이요, '나'가 이것이요, '책상'이 이것이요, '앉는 것'이 이것이요, '컴퓨터'가 이것이요, '두드리는 것'이 이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요, '분별심'이 이것이요, '하나하나의 생각'이 이것이요,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요, '말하는 것'이 이것이요,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분별하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물이 있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말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바른 안목에서 보면 시간·공간·사물·생각·말이 모두 한결같이 법(法)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른 안목이 없으면 손대는 일마다 마주치는 인연마다 걸리고 부딪혀서 구속을 받지만, 바른 안목을 갖추면 하나하나의 일과 하나하나의 인연이 한결같이 다만 이것일 뿐이니 걸릴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구속받을 것도 없어서 늘 자재하고 거리낌이 없다. 요컨대 법을 모르면 일마다 물건마다 걸리고 구속받아서 일과 사물에 부림을 당하지만, 법을 알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물의 정체를 남김없이 다 알기 때

문에 일과 사물을 능동적으로 부릴 수가 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알고 보면 세계의 실상(實相)이 원래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곳 눈앞에서 세계는 펼쳐지고 있는데, 무한히 작은 것에서 무한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다만 이것 뿐으로서 한 맛이다. 이 한 맛이 무엇인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고, 심장이 뛰고, 밥 먹고, 똥 누고, 바람이 불고, 선풍기가 돌고, 자동차가 달리고, 태양이 떠오르고, 별이 반짝이고 강물이 흐르고 파도가 치고,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별과 태양의 움직임이 바로 내 손가락의 움직임이며, 손가락의 움직임이 바로 자

동차의 움직임이며, 자동차의 움직임이 바로 내 생각의 움직임이며, 생각의 움직임이 바로 태평양 바다 깊숙이에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이며, 물고기의 움직임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의 눈동자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모양을 따라가면 천차만별로 다른 세계가 있지만, 법으로 보면 오직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오직 이 하나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뜻으로 이해하여 그렇구나 하고 여긴다면, 이 하나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앞에서 보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그림이지만 뒤집어 보면 다만 한 장의 종이일 뿐인 사진처럼, 우리도 분별의식을 한 번 뒤집어서 내려놓는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이 하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http://www.mindtree.net/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아미타부처님 몸이 꽃핀 200일기념 큰스님 초청 무차대법회

— 다 음 —

법화경속에 부처님 몸이 꽃핀 깊은 뜻은 앞으로 이나라에 전륜성왕이 출현한다는 의미이며, 전륜성왕은 복과 지혜가 충만하신분으로 무럭을 쓰지 않고 세상을 안락과 평화로서 구제하신다 하셨습니다.

3000년마다 한번 피는 우담바라가 상상의 꽃으로 간주되지만 저희 부산 해운대 반송동의 백운사에서 아미타 부처님 개금불사를 위해 탁좌에 내려놓고 뒹고 닦는 도중 눈에 물체가 환하게 비쳐온 열여섯송이의 꽃이 피어있는것을 발견하고 그 간 많은 불자님들께서 친견하였습니다

아미타부처님 몸이 꽃핀 200일을 기념하면서 아미타,관음기도의 3차 백일기도 입제와 천불관세음보살 점안 법회및 국가경제,문화발전, 부산아시아게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무차대법회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가지는 큰스님 및 저명인사초청 무차대법회에 많은 불자 신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어 부처님 몸이 핀 아미타부처님의 거룩한 자비광명을 기리시며 설법의 경정공덕과 삶의 보람을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불기 2545년 10월 좋은날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산 136번지

아미타불성지 운봉산 백운사 주지 마나 신도회장 강공덕화 신도회 천불회 지장회회원 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30분
■장 소 : 운봉산 백운사 대웅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동부산대학 뒷편)
■문의 전화 : 백운사 종무소 (051)542-4630
■법회일정안내
10월10일 수요일 대한불교원효종종정 범홍대종사
11일 목요일 동국대 박 완일 교수
12일 금요일 제주도 약천사 회주 헤인큰스님
13일 토요일 부산미룡사주지 김정각큰스님
14일 일요일 前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정 암도큰스님

오시는 길

